

장흥 표고버섯 3년 연속 홍콩 수출길 올랐다

정남진장흥농협 무산김 3t 함께... 키조개·김치도 수출 타진



김성 장흥군수와 강경일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 등이 최근 표고버섯의 3년 연속 홍콩 수출을 기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이 3년 연속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은 “최근 표고버섯과 무산김 등 2억원 상당의 장흥군 특산물을 홍콩으로 수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표고버섯, 무산김 3t으로 지난 15일 부산항에서 선적돼 홍콩으로 출발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3년 연속 표고버섯이 홍콩으로 수출된데다, 특히 장흥을 대표하는 무산김까지 이번 수출길에 올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창출과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의 대중화를 위해 표고음료, 표고차, 표고조미료,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등 표고버섯 소비촉진과 판매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경일 조합장은 “현재 키조개와 김치 등도 수출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농산물은 물론 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출가능성이 큰 상품을 발굴해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해 홍콩과 일본 등으로 8억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수출했고, 홍콩 바이어와 연간 35톤 150만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영암경찰 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자 교육

영암경찰청은 “최근 영암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 50여명과 신고 의무 직군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대 피해아동 발견 및 의심 시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건화 영암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아동과 접촉이 많은 보육시설 신고 의무자들의 관심과 신고 정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기자 jbh@

장흥 대덕읍 소통행정

경로당 순회 목소리 청취

장흥군 대덕읍이 각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일 오후 관내 마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순회방문에서는 군정을 전달하는 관행적인 방문에서 탈피해 2시간 이상 어르신들과 한 자리에 앉아 마을 속사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손승현 대덕읍장은 “어르신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역민을 위해 정말 살펴야 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전국 최초 쥘트랙 레저스포츠대회 연다

5월중 가우도서 개최...가족 단위 80팀 300여명 모집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해상 하강체험시설 쥘트랙을 활용한 레저스포츠대회를 연다.

오는 5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쥘트랙 레저스포츠대회는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체육회가 주관하며, 최근 전남도 레저스포츠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를 지원받아 치러진다. 특히 해상 하강체험시설인 쥘트랙을 이용한 레저스포츠대회는 전국 최초다.

쥘트랙 레저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가우도는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지난해 73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했다. 특히 새해 첫 날 하루 관광객이 1만명에 육박하는 등 남해안 최고 섬 관광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쥘트랙은 가우도 정상에 있는 정자타워에서 출발, 도착지까지 1km에 이르는 국내 최장의

해상 하강체험시설로 횡단시간은 1분 남짓이다. 3개 라인으로 6명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해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공중에서 서로 마주 보며 내려올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에 개최될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가족단위 80개팀 3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대회 첫날에는 다산초당과 고려정자박물관, 영랑생가, 오감통 등에 대해 시티투어를 하고, 정자촌 캠퍼스에서 캠프아이와 가족 장기자랑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6개 읍면 찾아가는 여성교육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금정면을 비롯한 6개 읍면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지역 농촌여성 169명을 대상으로 ‘2017년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여성교육은 농한기인 동절기 동안 복지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먼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주 2회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요가, 한지공예, 노래교실, 라인댄스 등 겨울철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영암=전봉천기자 jbh@



‘으랏차차~’ 추억의 떡메치기

강진군 강진읍 오감통에서 지난 18~19일 열린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 여행’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떡메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 두 번째 여행인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 여행은 ‘건강 10대 농식품 문화마을 강진’을 주제로 강진읍 오감통 일원에서 콩·떡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강진읍 오감통에서 지난 18~19일 열린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 여행’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떡메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 두 번째 여행인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 여행은 ‘건강 10대 농식품 문화마을 강진’을 주제로 강진읍 오감통 일원에서 콩·떡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진군 제공>

영암왕인문화축제 ‘왕인’에 군서면 박종석씨 선정

영암군은 “최근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2017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왕인으로 박종석(81·사진)씨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종석씨는 3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후진 양성과 지역인재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퇴임 후에도 고향 영암에서 왕인문화학교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선정된 왕인은 2017왕인축제 기간동안 ‘왕인박사 일본가고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왕인 역할을 맡으며, 왕인박사의 소통과 상생의 정신을 선양하게 된다.

한편 ‘2017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 등 전남도 영암군 일원에서 열리며, ‘왕인박사 일본가고’ 퍼레이드,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YB(윤도현밴드) 박콘서트, 트리아트체협 ‘왕인애 포토여행’ 등 6개 부문 83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전봉천기자 jbh@

공공하수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영암군 수도사업소 이물질 막힘 예방 홍보

영암군은 20일 “오는 3월 초까지 상가 밀집지역, 가정집 및 농기계 수리 센터 등을 중심으로 공공하수도 이용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과 오수반이 유지관리방법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하수관로, 맨홀 등 개인배수설비 막힘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다.

홍보물에는 변기 안 이물질 투입 금지, 음식을 찌꺼기 거름망으로 분리 배출, 청소목적 외 우수반이 뚜껑 개폐 금지, 농기계 엔진유 폐유 통 별도 처리 방법 등이 알기 쉽게 표기돼 있다.

영암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식당에서 무분별하게 배출한 기름이 응고돼 하수관로가 막히거나, 변 안 이물질에 의한 막힘, 우수반이 내 빗물유입에 따른 하수 유입 등으로 하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홍보를 계기로 하수관로 및 우수반의 올바른 사용 및 유지관리방법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기자 jbh@

투자가치 좋습니다!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팟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매매 - 14억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